

국가형제회 주제에 대한 묵상: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최근에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미국 국가형제회 총회에서 2025년-2028년 국가 주제를 “너희는 온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16,15) 로 결정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국가 우선 순위 과제는 “복음을 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그 주제와 우선 순위 과제가 우리의 회칙과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폭넓게 살펴 볼것이다. 앞으로 3년에 걸쳐 그 둘의 여러가지 면을 조명해 볼 것이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복음을 살아 그리스도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이 주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복음화와 복음의 증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보도록 이끈다.

관계 형성하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은 사랑과 존경에 바탕을 둔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칙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 “성부께서 수많은 형제들의 만이이신 성자의 모습을 각 사람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회원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인간답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창조하게 되고 그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초대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하느님을 찾도록 영감을 주기: **회칙 6조**는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른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아 자신의 영적 여정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복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증명하고 다른 이들이 신앙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양성하기: 회칙은 또한 영속 양성과 개인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칙 7조**는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양성함으로써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더 잘 나눌수 있게 된다.

다른 이들을 우리 삶의 양식으로 끌어들이기: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끌어야 한다. **회칙 16조**는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의 구원 업적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활동을 통합하고 복음을 살아감으로써 오는 기쁨과 성취를 보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이끌고 그리스도를 따라도록 고무시킬 수 있다.

교회 재건하기: 성 프란치스코는 “교회를 재건하라는”소명을 받으셨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회칙 4조**는 “재속 프란치스칸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교회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쇄신과 성장에 기여한다.

세상의 활동과 도전에 관여하기: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일에 관여하여 믿음과 희망으로 그 도전들을 풀어내라는 소명을 받았다. **회칙 15조**는 “ 회원은 정의를 촉진하도록 자신의 개인 생활로써 증거하고, 집단적으로 활기에 찬 창의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일상 생활에서

믿음과 행동을 통합하고, 희망을 키우며 변화의 씨를 뿌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주제는 우리가 쇠신화된 열정과 헌신으로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소명을 살아내도록 초대한다.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고무시키고, 성령의 도움으로 스스로를 양성하고,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고, 교회를 재건하며 세상의 일과 도전에 관여함으로써, 우리는 효율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형제회 우선 순위와 주제 과업 팀의 영감을 받아 쓰였으며 다른 연구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았다.

토론과 저널에 답쓰기를 위한 질문

- + 위에 적힌 국가형제회 주제를 지원하는 항목들을 다시 읽으시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형제회가 어떻게 이번 주제와 회칙이 말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 + 회칙의 다른 조항중 어떤 것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까?
- +도전: 형제회안에서 토론한 후에, 복음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보시오.